

과일 사먹기 겁나네...딸기 184%·부추값 25% 꺾충

12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비 2.0%·1.9% 상승 신선식품 상승 주도...지난해 연간 2.5% 올라 4년만에 최소폭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철을 맞은 딸기가 전월보다 2~3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일류를 중심으로 신선식품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5.14로 전월

(114.61) 대비 0.5%, 전년 동월보다는 2.0% 올랐다.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는 117.45로 전월(117.21)과 전년 동월(115.01)에 견주어 각각 0.2%, 2.1%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가 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추가 1달 전보다 40.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파(10.3%), 고등어

(6.8%), 사과(5.2%) 등이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28.31로 전월 대비 4.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 신선채소는 3.3% 내렸지만, 신선어패류(3.1%), 신선과실(13.2%)은 올랐다. 특히 지난해 사과와 배, 울해 딸기, 귤 등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부진으로 가격이 대폭 오른 신선과실은 전년 동월보다는 4.9%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로는 딸기가 1달 새 184.4%나 올랐고, 배(6.8%), 사과(5.2%), 귤(3.5%) 등도 상승했다. 전남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 기준 115.58로 전월(115.03)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5%, 1.9% 상승했다. 전남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역시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위주로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부추가 24.6% 상승했고, 무(13.1%), 파(7.0%), 고등어(3.3%), 귤(2.4%) 등이 올랐다. 전남에서도 신선식품 물가 상승은 신선과실이 주도했다. 지난달 전남 신선식품지수는 123.27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6%, 3.3% 상승했다. 신선채소지수가 1달 전보다 3.7% 하락했지만, 신선어패류(3.1%), 신선과실(12.0%)은 올랐다. 품목별로는 딸기가 전월보다 136.4% 올랐고, 체리

(71.9%), 배(17.0%) 등의 물가가 상승했다. 이 밖에도 귤(14.8%), 게(9.8%), 새우(6.7%) 등은 올랐고, 상추(-28.7%), 브로콜리(-26.0%) 등은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양 지역 모두 연간 2.5% 올라 4년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노력 등에 따라 점차 안정되는 모양새다. 다만 물가 상승폭만 안정되고 있을 뿐 지난 4년간 치솟은 물가로 인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기저효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모든 불확실성 걷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 되길”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신년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칙칙 같은 어두움을 뚫고 솟아 오른 태양처럼 을사년 올 한 해에는 우리나라가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용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인들에게 위기는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등 3고 현상과 더불어 유럽과 중동지역의 전쟁 장기화, 소비와 투자의 부진 등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8대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는 물론 철강,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물량공세와 덤핑수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장벽보다 무서운 중국의 추격이 전 산업분야에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그야말로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아와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이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점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양산된 전기차의 해외 시장 수출을 본격화하는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두보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AI집적단지·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도 이차전지·우주항공·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굵직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시도민과 기업인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합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과 AI집적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과도 힘을 합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업 적극적 투자 이끌어 낼 규제 개혁·환경 조성 필요”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 신년사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적극적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규칙과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푸른 뱀의 기운인 지혜와 통찰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합작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乙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술술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되돌아보건데 2024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내수 부진 그리고 비상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불거진 정치적 혼란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연말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와 사회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통상환경에 큰 부담이 되어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광주·전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 모든 주체가 힘을 모으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빅데이터 상품 선택 할인 홈플러스 8일까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홈플러스가 고물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도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2025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열고, 올해 첫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는 홈플러스가 지난 27년간 쌓아온 구매 빅데이터에 기반한 AI를 활용해 적기에 수요가 높은 상품을 선정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크게 ▲'AI 가격혁명' ▲'물가안정 365' ▲'홈플러스 단독상품' 3가지로 추진된다.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새해 첫 'AI 물가안정 프로젝트'에서는 한돈·한우·연어 등 인기 축·수산물 먹거리 상품들과 제철을 맞은 딸기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우선 오는 5일까지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덕돼 삼겹살·목심(100g)'을 1300원에, '농협안심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는 50% 할인한다. 또 최근 가격이 급등한 '딸기(500g)'는 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오는 8일까지는 '휘라 노르웨이 생연어 전품목'을 40% 할인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원을 대상으로 양파(3kg), 남해안 생굴(200g)도 40% 할인판대한다. 같은 기간 다양한 딸기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딸기 유니버스'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실 딸기, 킹스베리 딸기, 장희 딸기, 설향 딸기, 비타 베리 딸기 등 딸기 전품목을 8대 카드로 결제 시 5000원 할인한다. 이 밖에도 딸기 샌크림 케이크, 딸기 초코 샌크림 케이크 등을 20% 할인한다. 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홈플러스가 그간 진행해 온 각종 물가 안정 노력들을 한 데 모은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상품, 가격, 혜택들을 기획했다"며 "2025년 한 해,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역량강화 교육

도입기업 실무자 등 78명 참여

광주테크노파크가 지난달 '2024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기업, 도입기업, 공급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78명이 참여하여 마무리되었다. 교육은 스마트공장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절차, 우수 사례 공유, 산출물 작성 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참여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와

도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자료가 제공되어 호평을 받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이 지역 내 기업의 제조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기업 실무자와 대표자들의 마인드 전환 및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탑건설 2조원 규모 신안 해상풍력 허가 취득

유탑건설이 2조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유탑건설은 1일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전 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 지난달 30일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은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해상 일대 61.26㎢ 규모로 조성되며, 설비용량 323MW, 총 사업비는 2조원이다. 유탑건설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88만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0만명이 연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정병래 유탑그룹 회장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그룹의 기술력과 사업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유탑건설이 직접 건설에 참여하고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게임 콘텐츠 지원

다년도 후속 지원 2개 과제 선정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내외 게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인 제작 지원을 위해 다년도 후속 지원 2개 과제 선정에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국내 상용화 버전 개발 이후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는 게임 기업을 선정해 상용화 버전이

후 추가 게임빌드 제작, 글로벌 출시를 위한 번역, QA·고도화 지원으로 게임 개발사의 역량 강화 등 지역기반의 스타게임 발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24년 시장진출형 게임 고도화 제작지원 사업 참여 7개 기업(7개 과제)을 대상으로 2024년 협약과제별 결과평가에서 받은 점수의 90%와 전남 글로벌게임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업 간담회 및 교

육, 국내·외 전시 등 참여도 10%를 합산하여 상위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2개 과제는 (주)에니투의 물리엔진을 적용한 공포게임 '리사이클 팩토리'와 (주)팜의 코리안 오픈트 호러게임 '더 고스트 스맛' 상용화 프로젝트로, 모두 PC기반 게임이다. 이인용 진흥원 원장은 "전남 지역의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 상품을 고도화 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전남 게임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농어촌공사, 농산물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

지난해 1억 1240만 달러 수출 상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를 돌며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수출 인허가를 취득하고 글로벌 마켓테스트를 돕는 등 국내

농산업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연간 총 4회에 걸쳐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758건의 수출 상담과 1억 124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 이 중 2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실제 체결됐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 등 주요 해외 박람회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견

인했다.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국제 박람회, 해외 로드쇼,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618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성사시켰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올해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농산업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 출시 삼성전자는 2일부터 인공지능(AI)을 탑재한 PC '갤럭시 북5 프로(Pro)'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북5 프로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2'(코드명 루나레이크)를 탑재했으며,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궁극한 이미지나 텍스트 등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 셀렉트' 기능을 갤럭시 북 라인업 최초로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6일까지 구매 고객에게 'MS 오피스 홈 2024'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